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6. 16.(수) 10:30	배포일시	2021. 6. 16.(수) 10:00
담당과장	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(044-215-5310)	담당자	이고은 서기관 gonni@korea.kr
	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장 박정현(044-215-7390)		김병철 사무관 bckim8123@korea.kr
	예산실 교육예산과장 권종각(044-215-7250)		김형은 사무관 wlhot32@korea.kr

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지역혁신사업 [광주 인공지능(AI)집적단지, 광주·전남 RIS] 현장방문

- 지역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 등 지원 확대
- 지자체+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사업 지원 본격화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월 16일(수) 10시 30분, 광주 인공지능(AI) 창업캠프 및 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클러스터를 방문하여,
 - 지자체와 산학연 협업을 통해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재정사업(광주 AI집적단지 조성, 광주·전남 RIS)을 현장점검하고,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산·학·관·연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

< 현장방문 개요 >

- ① **광주 AI 집적단지 현장방문 및 AI산업 스타트업·중소기업 간담회**
 - **일시·장소** : '21.6.16.(수) 10:30~12:00, 광주 동구 인공지능 창업캠프
 - **참석** :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재정관리총괄과장, 정보통신예산과장,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디지털인재양성팀장 (광주광역시) 문화경제부시장, 인공지능산업국장 (유관기관) 광주 인공지능융합사업단장 (민간·연구원) 창업자(초기~상용화), NHN, GIST(R&D수행), 광주 이전기업 등
- ② **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(RIS) 간담회**
 - **일시·장소** : '21.6.16.(수) 14:00~16:00, 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클러스터
 - **참석** :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재정관리총괄과장 (교육부) 고등교육정책실장, 고등교육정책관,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(전라남도) 정무부지사, 연구바이오산업과장 (유관기관) RIS총괄운영센터, 전남대, 목포대, 동신대 등 (민간·연구원) 사업 참여기업,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등

【 광주 AI 집적단지 현장방문 】

- 안 차관은 광주 AI 창업캠프를 방문하여 입주 스타트업을 격려하고, 정부 지원 '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*'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데이터센터·실증장비 구축 및 AI기업 유치·인재양성 등 광주시와 지역 산학연이 협업하여 창출하고 있는 가시적 사업성과를 확인하였음

*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(광주 첨단3지구, 2020.~2024.(5년), 총사업비 3,939억원)

< 주 요 성 과 >

- **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**(연산량 88.5PF, 저장공간 107.7PB)를 구축할 NHN를 비롯해, 지난 1년여 동안 95개 인공지능 기업·기관과 MOU를 체결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
- 인공지능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**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** 및 인공지능 창업캠프 개소('20년), 인공지능 투자펀드(1,098억원 규모)를 조성
- 전국 최초로 **인공지능 사관학교('20.7.~)**를 운영해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1기 졸업생 155명을 배출

- 아울러, 우리나라가 **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**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**인공지능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**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**한국판 뉴딜*** 등을 통해 AI생태계 발전 투자에 집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

* 재정투자 160조원('20~'25년) 중 디지털 58.2조원, **D.N.A. 생태계강화 38.5조원**

- 이어 간담회에서 안 차관은 **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**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·확산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,

① 광주를 선도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로 집중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음

- 그동안의 투자 성과*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데이터 센터를 착공(~23년 완공)하고 '22년에는 실증 장비 77종(~21년 38종 既 구축) 구축을 완료

* AI 집적단지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융합 R&D를 지원중이며 이미 59건의 특허 출원, 9건의 SW 등록 등의 성과 발생

- '24년까지는 AI 핵심 인프라(컴퓨팅 자원, 데이터, 대형 실증장비) 집적을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빅데이터 댐과 국가 인공지능 거점 기지로 육성할 계획
 - 아울러, 이 지역 3대 특화산업(자동차, 에너지, 헬스케어) 분야를 타겟팅 해서 AI를 활용한 혁신적 부가가치를 갖는 제품·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, 집적 단지 구축 이후('24~)에 대비한 2단계 발전방안도 기획해 나갈 계획
 - 한편, 광주에 구축되는 인프라·데이터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국에 공유·개방됨으로써, 타 지역도 이를 활용해 AI를 융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이 이뤄지도록 유도
- ② 또한,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성공의 관건은 “인재 확보”이며 전세계적인 AI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에서 우수 인재 확보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을 언급하면서
- 광주 AI 사관학교가 ①지역 특화 기업 수요에 맞춰 ②몰입형(기숙사형) 교육과정을 통해 ③과정 이수 후 채용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하였음
 - 관련하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AI 중·고급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, 지역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에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힘
- * 이노베이션스퀘어('21년 6,800명), 지역산업 연계 AI 고급인재 양성('22년 신규), 네트워크형 캠퍼스 SW 아카데미('22년 신규) 등

③ 더불어,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를 융합시키는 실증 사업인 「“지역 선도 AI 융합 프로젝트”」를 확대하여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AI기반 사회 구현의 효능을 국민이 체감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

- 예로, 산업분야의 AI 응용 확대를 위해, 생산공정 최적화·품질관리 등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·실증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지역(현재 충북* 1개소)을 확대

* 반도체 기판의 검사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시간 촬영하여 불량유형(돌기, 스크래치 등)과 위치를 90% 이상 정확·신속하게 검출

-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트랙터 고장 자동점검, 지능형 CCTV, 스마트 쓰레기통 등 생활 밀착형 지능정보기술 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

* 대전 유성구의 경우 보건소 연계 Io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(발열체크, 건강 이력 제공),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가 복지 서비스(운동 건강 프로그램) 등 제공

【 광주·전남 지역혁신사업(RIS) 현장방문 】

□ 안 차관은 이어서 광주·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수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현장과 연구현장을 방문하고, 참여대학·교육청·기업·연구기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였음

□ 지역혁신사업*(RIS)은 지역내 전략산업의 주요 주체들 간 지역혁신플랫폼**을 통해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와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

*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: 지자체-대학-기업-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 위해 교육체계 개편, 인력양성·기술개발·기업지원 등 수행

** '21년 4개 플랫폼 : 광주·전남, 울산·경남, 대전·충남·세종, 충북('21년 1,710억원)

- ①지자체-대학-기업-연구기관 등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총괄 운영센터 중심으로 전략적 사업기획 및 예산 집행,
 ②대학 간 칸막이를 넘어선 공동 교육과정 설계·운영,
 ③지역기업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종래 산업 관련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

- 광주전남지역은 작년에 대표적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에너지신산업, 미래형운송기기 분야를 특화하여 지역 산·학·연·지자체 등 혁신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지역의 혁신 역량을 총 결집해 「광주·전남형 혁신 대학(IU-GJ)*」을 모범적으로 구축하였으며

* 전남대 등 15개 대학, 교육청, 한국해양과학기술원, 한국수자원공사 등 32개 지역혁신기관, 70여개 기업 참여

- 금년부터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목표로 323개 혁신적 프로그램**을 운영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지역특화 산업 성장을 본격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

* 지역 내 15개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살려 지역 핵심분야 연계한 맞춤형 공동 교육과정 설계·운영(학교 간 융합전공 6개 설치·운영, '22.3~)

** 삼호중공업, 대한조선과 연계하여 취업연계 특화교육, 채용약정형 교육 등 친환경 스마트 선박 설계·생산 전문인력 양성(목포대 등 5개 대학)

- 향후 1단계 사업을 '22년까지 차질없이 지원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혁신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,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인재 양성 분야에 지방 교육청 등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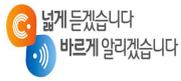
○ 또한, RIS사업과 도심내 혁신거점 조성 사업(도심융합특구*, 캠퍼스혁신파크**)을 연계하여 지역인재양성 사업 효과가 지자체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

* 지방 광역시(대전, 대구, 광주, 울산, 부산) 중심지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구축('21년 15억원, 기본설계비)

**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

- '20년 선정(강원대, 한남대, 한양ERICA), '21년 선정(전남대, 경북대)

- ('20) 2,220백만원(설계비) → ('21) 31,400백만원(설계비+공사비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고 1

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 주요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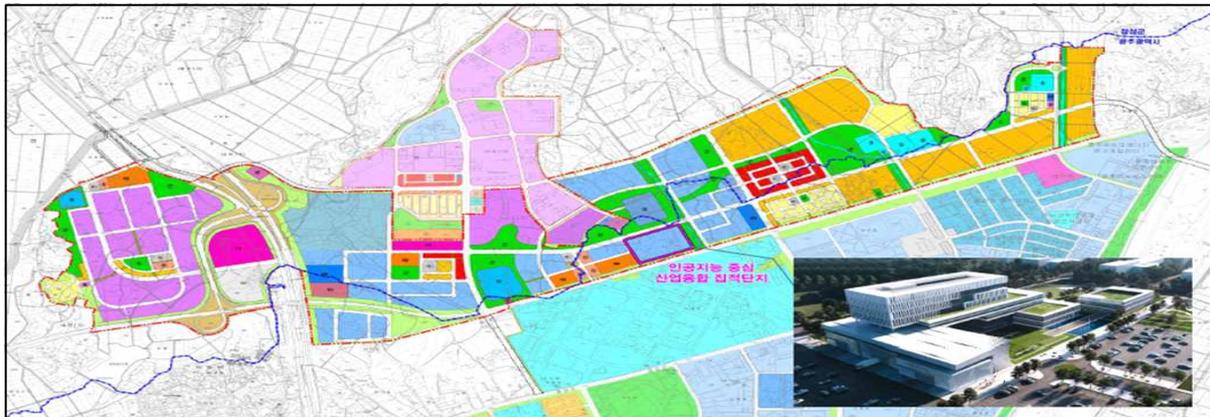
□ 개요

- ▶ **(목적)** 지역주력산업(자동차·에너지·헬스케어)과 AI를 융합하는 집적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·일자리 혁신
- ▶ **(기간)** 2020 ~ 2024(5년)
- ▶ **(위치)** 광주 첨단3지구 내 47,256㎡
- ▶ **(총사업비)** 3,939억원
 - * 국비 2,726억원, 지방비 805억원, 민자 408억원
 - **(비R&D)** 3,431억원
 - **(R&D)** 508억원



□ 주요내용

- **(인프라 조성)** 건축(실증, 창업, 데이터센터 등), AI 특화 데이터센터(연산 88.5PF, 저장 107PB) 및 AI 융합 제품·서비스 실증 장비(77종) 구축
- **(창업지원)**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기업 성장단계 소주기 AI 특화 창업 및 기업지원(500개사)을 통한 일자리(803명) 창출
- **(인재양성)** 지역 AI 역량강화 및 실무형 AI 인재양성을 위해 광주지역 내 AI 융합대학(4개교) 선정·운영 및 AI 직무전환교육(800명) 추진('21년~)
- **(R&D)** 광주 지역의 3대 주력산업(자동차·헬스케어·에너지)과 AI 융합 R&D를 통한 산업생산성 혁신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·서비스 창출



□ 사업 목적

-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, '지방대학의 혁신'을 통한 '지역혁신'을 추진

□ 개요

- (지원대상)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총 4개

< 2021년 선정 지역혁신 플랫폼 >

지자체	핵심분야	대학	지역 혁신기관	국비 지원금
광주·전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에너지신산업 ■ 미래형운송기기 	전남대(총괄), 목포대(중심) 등 15개 대학	32개	480억 내외
대전세종충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■ 모빌리티ICT 	충남대(총괄), 공주대(중심) 등 24개 대학	68개	480억 내외
울산·경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■ 스마트제조 ICT ■ 스마트공동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래모빌리티 ■ 저탄소그린 에너지 경상국립대(총괄), 창원대(중심), 경남대(중심), 울산대(중심) 등 17개 대학	46개	450억 내외
충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약바이오 ■ 정밀의료·기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장품 천연물 충북대(총괄), 한국교통대(중심) 등 15개 대학	44개	300억 내외

- (지원내용) 지자체,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(1)플랫폼을 구축하여 (2)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, (3)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(a)교육체계를 개편하고, (b)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
- (사업비) 국고 1,710억 원 ※ 전체 사업비의 30% 이상 지방비 대응

□ 기대효과

-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재양성에서부터 취·창업, 정주까지 체계적 지원
 - ※ 지역인재 육성 관련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강조,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 내 인재양성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합 관리망 구축 등 추진
-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,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